

기쁨속에 돌아보신 생산공정

2016 년 1 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가방천생산공정을 돌아보실 때였다.

현장에서는 가방걸천과 가방안감천을 동시에 짜는 유연창대직기의 가락맞는 소리가 고르롭게 울리고있었다. 그 직기로 말하면 우리 로동계급과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 만든것이였다.

직기들의 작업모습도 유심히 보아주시고 기대에서 나오는 천도 살펴보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렇게 천을 생산하니 참 좋다고 하시며 직포종합직장은 당정책을 관철하는 직장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수행일군들에게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가방천생산공정을 꾸리는데 기여한 일군들과 로동자들, 과학자들을 높이 평가해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가방천생산공정에 차려놓은 설비들이 수입설비들처럼 번쩍거리지는 않아도 우리가 자체로 만든것이기때문에 더없이 귀하고 소중한다고, 이렇게 우리의 힘과 기술로 가방천생산공정을 꾸려놓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였다.

우리 나라에 가방천을 대량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커다란 기쁨을 표시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그이를 우러를수록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걱정이 솟구쳐올랐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설비도 자재도 다 우리의것으로 만든 진정한 우리의 가방을 안겨주게 된것이 얼마나 기쁘시였으면 이렇듯 만족해하시랴.)

일군들은 굳게 결의다졌다. 자력갱생만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열어나가는 애국의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의것을 더 짙짙 생산해내리라고.